

물질 보시보다 사경공덕 수승

◇사경은 경전의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정성스럽게 옮겨 쓰는 수행법이다. 노부살이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있다.

초파일을 앞두고



법현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일요일에 교외에 있는 육군 묘사 단 군법당에 다녀왔다.

병사들에게 부처님과 함께 하면 즐거운 이유를 설명하고 불자들에게 함께 점심을 먹었다. 식사후의 노곤한 몸을 추스르고자 같이 있던 불자들 간부 및 부인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쉼 연등을 만들다 왔다. 대개의 불자들이 신행활동에 경험이 적어 연꽃을 비벼달고, 등 살에 꽃잎을 붙이는데 서툴렀다.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 낳고 멋진 애인 생긴다고 말해주는 우스개소리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법당에는 한달에 한 두번 정기적으로 가는데 담당 법사가 없다. 그래서 불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종단협의회 소임을 맡은 이후로 그만 두었던 정기법회의 법사역할을 맡은 것이다. 군법당에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도 크지

아무리 열심히 열을 내서 설명을 해도 눈이 밝지 못한 우리네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배에로가 뛰면 뿔수룩, 아들딸의 위급함을 안 부모의 표정이 심각하면 할수록 바라보는 관객이나 아이들은 오히려 더 즐거워한다.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볼 수 있다. '하루'라는 영화 주인공이 낱은 불운한 아이의 하루밖에 안 되는 삶이 기구하면 할수록 관객들의 가슴에는 메아리치는 것이 많다. 영화를 보면 젊은 남녀가 나누는 대화는 그래서 역설적 사실로 다가온다.

참불자의 길 사경의 의미

“선남자·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단지 서사(書寫)해 책으로 만들어 집에서 공양만 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며, 외우지도 않고 설하기도 않으며 바르게 사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세에 공덕을 얻게 된다.” <대품반야경>
“무수한 세월동안 물질로 보시한 공덕보다 경전을 사경, 수지해 다 큰 이를 위해 해설한 공덕이 수승하다” <금강경 지경공덕본>

사경은 글자를 쓰면서 흐트러진 정신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할 때 장애가 빨리 오지는 초심자들도 특별한 지식이나 가르침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으로 꼽힌다. 불자가정이라면 어린이·청소년들이나 어머니들이

한자 한자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 산란심이 없어지고 일심(一心)이 잘 들릴만 아니라 주옥같은 경구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어 정신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경도 일심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온갖 집착을 떨쳐 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 요즘은 사찰에서 사경 수행을 할 때 한자 쓰면서 한 번 절하는 일차일배 의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 절 수행도 함께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문을 필사하는데 특히 큰 뜻을 갖게 되었으며, 사경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경은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불경을 널리 유포시킬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8세기 중엽 무관본의 보급으로 불경의 유포보다는 공양 또는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변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난 극복과 가문의 영화를 기원하기 위해 귀족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사경집이 많이 제작되기도 했다. 또 이렇

게 완성된 사경집은 불상이나 탑안에 봉안됐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법화경> 사경이 유행하는데 이는 그 당시 성행한 법화신앙과 관련된 '경탑승배(經塔崇拜)' 사상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의미의 변천 과정을 거쳐 사경은 오늘날 불자들에게 인격형성과 신행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행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부처님 가르침

한자한자 옮겨 써

마음에 새기는 수행

초심자도 쉽게 동참

각 가정에서 <반야심경>을 비롯해 <금강경> <천수경> 등 여러 경전을 펼쳐놓고 사경하는 모습을 한번쯤 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경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히

사회 곳곳 아픔많은 요즘 연등에 담은 서원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단 불자들이 느끼는 기쁨 또한 크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각자의 마음과 관계가 있다.

“불이야! 불났어요. 빨리 피하세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강당 끝에 불이 난 것을 본 뱀어로는 얼굴까지 빨개지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지만 그것마저 연기하는 것으로 파악한 관객들은 오히려 실감나며 손뼉을 치고 좋아할 뿐 자리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지극한 군중의 의식은 불교의 <법화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놀이에서 빠져 집에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바보 소,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다고 짐짓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들딸을 아끼는 부모처럼 중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설법하는 것과 같다. 강당 끝에 난 불이나 집에 난 불을

“너무 감동적이야. 어쩌면 저렇게 비극적인 수가 있지? 저렇게 비극적인 삶을 만일 나보고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틸거야.”

“그래, 그러나 너무 감동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저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봐. 물론, 우리에게 보일려고 저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크게 감동하면 할수록 저 주인공은 더 힘들어야 돼.” 이렇게 주인공의 삶까지 걱정해 가며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회 구석구석에 아픔이 많은 요즘이다.

꽃샘추위와 봄비를 맞은 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폭이 좁고 밀에 돌이라도 있어서 흐르는 물이 고생을 해야 노를 띄우는 법이다. 빛과 어둠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같은 한몸임을 아는 우리에게 올해의 부처님오신날은 '밝음 두배'의 연등축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 사정으로 '불교로 보는 인생' 쉽다



禪과 21세기

“다만 범속한 정식(情識)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런 지해(知解)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번 웃음에서 활연히 정안(正眼)이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었으니, 힘을 얻을과 잊지 못하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이란 참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는 것(識心見性)이다. 그러나 참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본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알려지는 물건'이 아니고 자성은 '보여지는 물건'이 아니다. 마치 허공이 그 속에 삼라만상을 담고 있듯이, 마음은 그 속에 무슨 물건이든 다 담겨지는 테두리가 없는 그릇이다. 마음이 라는 그릇은 테두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담겨지는 물건을 보아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아무 물건도 담지 않은 빈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알려지는 것은 다만 담겨지는 물건뿐이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보고 그릇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그릇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쇠로 만들어진 것이든,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이든 그 테두리의 재질을 두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물건을 담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참 그릇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테두리가 아니라, 물건을 담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보이고 만져지는 테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담기도 하고 비워내기도 하는 기능만 있다면 그것이 참된 그릇이다. 마음이 바로 이러한 그릇이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그릇을 확인하는 길은 그 속에 담겨지는 정식(情識)이라는 물건만을 보아서 안되고, 그 정식이 담겨지고

비워지는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물건이 없다면 기능은 파악되지 않으므로, 물건을 보되 물건을 보지 말고 그 물건이 담겨지고 비워지는 그릇의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물건인 정식은 색깔·소리·냄새·맛·촉감·생각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참된 마음은 이처럼 무수한 정식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기능이다. 따라서 매 순간 순간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정식을 보되 정식만을 보지 말고 정식의 생멸 변화를 잘 보아서 정식을 담고 비워내는 기능을 파악해야 비로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기능이란 지금 이 순간의 생멸 변화의 움직임일 뿐이므로, 어떤 행태로든 고정된 정식으로 파악되

이참정에 대한 답서 (2)

직접 마셔야 물의 맛을 안다



김태완
부선대 강사·철학

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해 스님은 “다만 범속한 정식(情識)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런 지해(知解)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피부가 모두 탈락하면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으니, 마치 전단(傳單)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탈락하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약산유엄 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것을 보충설명하는 것이다.

자성(自性)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모양 없는 기능을 보는 것이다. 그 때문에 황벽 스님은 자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배상공의 물음에, “보는 것이 곧 자성이니, 자성으로써 다시 자성을 볼 수는 없다. 또 듣는 것이 바로 자성이니 자성으로서 다시 자성을 들을 수는 없다. 만약 그대가 자성이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성 밖에 또 하나의 다른 법(法)이 생겨나”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파악하고 참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매 순간 보고·듣고·냄새 맡고·맛보고·느끼고·생각하는 속에서, 색깔·소리·냄새·맛·촉감·생각이라는 정식을 놓아버릴 때 열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놓아가지 저것을 놓아가지 하는 격식을 앞세운다면 정식을 벗어나기가 오히려 어렵게 된다. 그저 “다만 범속한 정식(情識)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런 지해(知解)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히 참구할 뿐이다. 그리하여 한 번 웃음에서 활연히 정안(正眼)이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어버린 이참정 같은 체험을 하여야 비로소, 물을 직접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 향다운 향으로 공양을 드립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 및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거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쁜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제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 의식용 목적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중풍·뇌·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식

방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0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안에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 2kg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배게, 방식

배게의 내용물 약재는 30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공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배게, 박하배게, 메밀배게, 질경이배게 등(두들, 중풍 등) 석씨향방의 배게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배게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배게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 4kg

32종의 한약재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협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나도 향기나는 사람이고 싶다.

스님이 가르쳐 주는 동양 전통의 향기 요법!

향으로 배우는 건강 요법부터 목욕 요법까지 - 그 재료와 사용법

기신 혜월(迦山 慧月) 스님 지음

- 향의 비밀
- 우리나라 향기 요법의 발전 과정
- 향과 종교
- 전통 향 요법의 제작 과정
- 먹는 향
- 분향하는 향
- 화장품 향 만드는 법
- 향욕법
- 폐향법
- 침향법
- 혼향법
- 향, 호흡, 참선, 기공
- 향의 신비

동양전통향기대백과

동양전통향기요법의 비법을 찾아서

향을 아는 것은 인제나 물과 기름이 향기입니다.

정가: 12,000원

계백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4-59 덕산B/D 203호
TEL: (02)3141-3636 FAX: (02)3141-3634